

제2의 원자력밸리, 원자력연구에 들어선다



대 덕원자력밸리에 이어 원자력 관련 벤처기업의 집적지인 '제2의 원자력밸리'가 원자력연구소 내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은 "원자력 벤처기업의 공간난 해소를 위해 연구소 내에 제2의 원자력밸리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집적지가 출연연 내에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소와 벤처기업간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의 원자력밸리가 들어설 곳은 원자력 연구소 정문 왼쪽방향에 위치한 공간으로 규모는 3~4만평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곳에는 8개의 원자력 연구소 출신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걸쳐 금년내 건물 신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덕밸리 벤처기업인 경원에너지 등 8개 기업은 제2의 원자력밸리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장인순 소장은 "대덕원자력밸리가 원자력 벤처기업들의 클러스터 모델로 성공한 만큼 제2의 원자력밸리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 벤처기업의 공간난 해소 및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전민동 한진종합연구소와 ICU 사이에 위치한 대덕원자력밸리에는 7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제품 신 기술

뉴켄머티리얼스, 청색 LED 원재료 국산화

대덕밸리 반도체 재료 전문 벤처기업 뉴켄머티리얼스(대표 한상호)는 청색 LED 원재료인 질화갈륨(GaN) 웨이퍼의 적층물질인 트리메틸갈륨(TMГ)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트리메틸갈륨은 화합물 반도체용 에피웨이퍼의 핵심물질로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고속 신호처리 및 통신기능이 우수하고 소비전력이 적게 드는 통신 네트워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물질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회사는 트리메틸갈륨의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가격 경쟁력 확보, 사후 안전관리 확보 등 국내 반도체 재료시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호 대표는 "B2B 협력을 통한 다변화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올해부터 국내의 판매에 더욱 주력해 나가는 한편 생산설비 확충을 통해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